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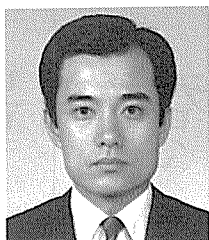
# 電算化 CON- CENSUS

電算化推進에 있어 가장 애로사항으로 사용자의 非協助를 드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이 問題를 解決하지 못하여 推進 中斷을 招來하던지 아니면 一方的 推進으로 實際와는 동떨어진 實効性없는 結果를 產出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사실 유저와의 合意를 통한 일사분란한 推進은 어려운 점이 많다. 専門知識의 不足으로 인한 요구사항의 非現實性은 물론, 잦은 변경과 電算化로 인한 과의업무증가 및 자신의 재량권 축소에 따른 기피 등이 상부관리층의 전산화에 대한 어설픈 의지와 중첩되어 합의에 의한 순조로운 추진을 저해하고 있다.

전산화가 단순히 프로그램개발로 인한 현행 수작업의 기계화가 되어서는 안되는 현 시점에도 국가적인 방대한 전산화사업을 경부 고속도로건설에 견주어 사용자의 의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관리자를 보면 추진상의 애로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섬찟한 느낌과 아울러 환멸감까지 들게 한다.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전산화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하는 것은 과거 여러가지 사례가 뚜렷이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시일의 촉박 등의 이유를 들어 사용자와의 Concensus를 이루지 않고 독



**문대원**  
총무처 업무분석관

자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를 대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전산화인지를 묻고 싶다. 사용자가 급하지 않은데 누가 무엇이 급한 것인지,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NACCS로 불리워지는 일본의 통관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관련기관간의 합의를 도출하고 법령·제도의 정비에만 7년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실은 능률성문제를 떠나 하나의 훌륭한 시스템개발에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다.

전산화 계획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단계에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반짝하는 효과나 자기 재임기간에 결과를 보겠다는 공명심으로는 효율적인 전산화, 실효성있는 output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는것 같은 일이다. 소프트웨어의 품질평가나 기술감리제도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